■ 강운태 시장 취임 후 광주 문화 인프라 사업 어떻게 …

옛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백지화

시민회관 예술인센터 불투명
가톨릭센터는 인권센터 활용
현대극장 뮤지컬전용도 관심

강운태 시장이 취임하면서 연일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광주시가 추진했던 문화 인프라 관련 사업들의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옛 광주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의 경우 강시장이 2011년까지 리모델링 중단을 요청한 상태며 문화정책실이 추진했던 현대극장 리모델링 방안도 인수위 보고서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권미술관 활용 계획 중단

당초 대대적인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2011년 인권미술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옛 광주시립미술관(광주문화예술회관 내)은 계획이 백지화됐다.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측은 올해 리모델링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하반기 추경예산 30억원을 추가, 총 60억원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2011년 개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시장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6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광주시의 재원이 확충될 때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옛 시립미술관을 현 광주시립미술관의 보조 전시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고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광주문예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 시설 공사나 구조 변경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향후 진행될 리모델링 작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대신 전시장 천정 조명, 바닥 공사 등 전시회를 진행하는 데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개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비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현 건물은 지난 1992년 건립돼 노후화가 심화된 상태로 현재 미술관 곳곳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미술관측이 이미 확보한 30억원의 예산은 전액 삭감될 예정이며 9월에 있을 추경예산 심의 때 미술관측이 자체 사업으로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최종적인 운영방안을 시에서 통보 받으면 일반 기획전시 대관이나 미술 그룹들의 전시회 유치를 위해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2011년 인권미술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옛 광주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계획은 일단 백지화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예술인센터, 뮤지컬 전용극장 어떻게

광주시는 현재 지역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술인센터 건립을 놓고 용역을 진행중이다. 지난 3월 용역을 발주할 당시 광주시와 예술인들이 적임지로 꼽은 곳은 광주시 남구 구동에 위치한 광주시민회관이다.

광주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그중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예술인 센터 타당성 조사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을 맡은 지오게이트는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현재 시민회관을 적임지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강시장이 시민회관을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활용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회관은 예술인센터의 하나의 후보지일 뿐이며 용역은 예술인센터의 위치를 비롯해 규모, 기능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술인센터는 건립 재원은 시 예산 뿐 아니라 예술인들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구도심의 대표적인 근·현대건축물인 광주가톨릭센터, 광주극장, 현대극장 등도 쓰임새가 바뀐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254억원을 들여 가톨릭센터를 매입, 인권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0억원을 확보, 용역비와 가톨릭센터 매입 계약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오는 2013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활용할 예정인 현대극장의 경우 광주시장직무인수위가 객석수가 많지 않아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설가 구효서 시인 도종환 소설가 마광수 소설가 김도언

'나는 가짜다' 문인들의 자화상전

광주신세계갤러리 28일까지 … 윤후명·마광수 등 42명 참여

시인과 소설가들이 글이 아닌 그림으로 자신의 내밀한 모습을 공개했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8일까지 국내 유명 문인들이 그린 자화상을 모은 '문인들의 자화상'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윤후명·마광수·이문재·김주영·함정임·박범신·안정효·함성호·서영은·김기택·권지예·한승원·김종광·도종환·권여선·이순원·구효서·장석남·윤이형·김언·김경주·천운영씨 등 42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유화, 수채화, 데생, 꼴라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는 최근 출간된 '작가가 그린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나는 가짜다'(헤럴드미디어 펴냄)에 수록된 작품이 출품된다.

그림 실력도 상당해 전시회를 여러 차례 연 소설가 윤후명씨는 두 봉우리 위에 자신의 얼굴과 새가 있는 그림을 내놨다. 소설가 김주영 씨는 자화상 대신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일 카드에 그려준 그림을 선보인다.

또 작가의 고백적 글, 실제 인물 사진을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선 마지막 인물화가 '채용신의 삼국지연의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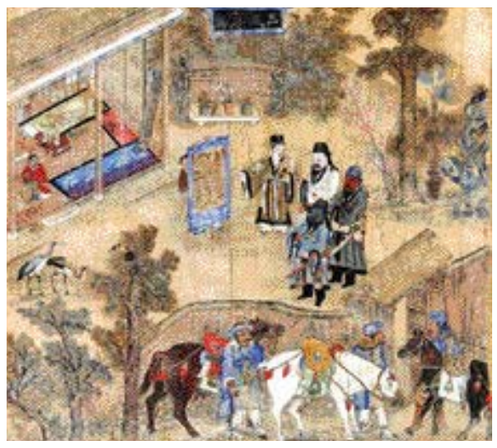
광주시립민속박물관 8월15일까지

유비, 관우, 장비의 용맹함이 화폭에 담겼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오는 8월15일까지 '채용신의 삼국지연의도'전을 연다.

석지 채용신(1850~1941년)은 조선 전통양식을 계승한 마지막 인물화가다. 서양화법과 근대 사진술 가미한 '채석지필법'이라는 독특한 화풍을 개척한 초상화의 거장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나관중 소설 '삼국지연의' 내용을 그린 삼고초려(三顧草廬), 적벽대전(赤壁大戰), 의석조조(義釋曹操), 서성탄금(西城彈琴), 단도부숙(單刀赴肅) 등이다. 이들 작품은 각각 세로 169㎝, 가로 183㎝로 감상용이 아닌 관우를 모시는 관왕묘에 봉안했던 예배화로 '적벽대전'은 지금까지 그려진 삼국지연의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걸작이다.

또 관람객들이 민화를 판화로 찍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곁들어지고,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4시에는 미술전문가들로 부터 작품 해설을 듣는 '갤러리토크'도 열린다. 문의 062-613-5367.


채용신 작 '삼고초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곡갤러리 동아리 회원전 ▶ 29일까지 닥인형 등 85점 전시

제6회 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전이 오는 29일까지 도서관 내 일곡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서관에서 활동중인 닥인형, 퀼트, 천연화장품, POP 동아리 회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농성문화의집 퀼트반 회원 5명과 함께 85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따먹기' 등 전래놀이를 주제로 한 닥인형 작품 25점이 전시되며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퀼트 작품 15여 점도 선보인다.

또 천연재료를 이용한 화장품과 비누 작품 20여 점, 예쁜글씨 POP 작품 20여 점도 전시된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닥인형 만들기 체험행사도 함께한다. 문의 062-575-345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여름 아이들의 즐거운 휴식'

광주 양림동에 '문화재지킴이센터' 개관

대동문화재단

광주에 근대문화유적과 시지정문화재를 상시적으로 관리·보호하는 문화재지킴이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은 15일 남구 양림동 근대문화골목 입구에 빛고을문화재지킴이센터(단장 정인서·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주로 양림동 지역의 근대문화유적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펼친다. 센터에서 상시관리할 문화재는 양림동 오웬기념각 등 광주시 지정문화재 5개소와 조선대 본관, 전남대 인문대 1호관 등 등록문화재 10개소이다.

또한 센터는 '빛고을 문화재전시관'도 운영한다. 센터 인근에 위치한 전시관은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안내센터 역할을 하며 지역 문화재 사진과 자료, 관련 도서 등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일을 맡는다. 문의 062-655-774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